

## 미-중 무역마찰 우려가 부각되며 낙폭 확대

### 미 상원의원 코로나 19 관련 대 중국 책임과 제재 법안 추진

#### 미 증시 변화 요인: 여러 발언 및 무역마찰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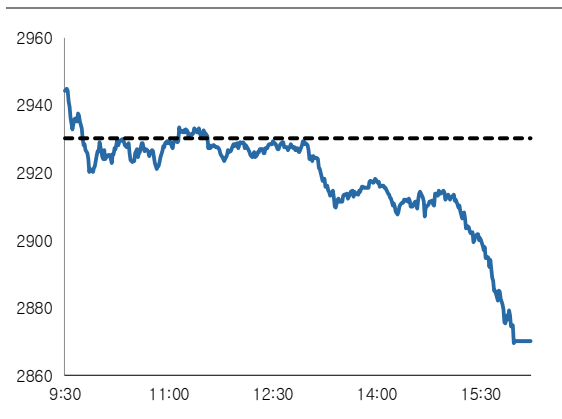
미 증시는 한국과 중국, 독일에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완화되자 상승 출발했으나 선부른 경제 재개에 대한 우려 및 경기 회복 속도의 지연 우려로 하락 전환. 이후 큰 변화 없이 일부 기업들의 개별 이슈 및 연준위원들의 발언에 따라 등락이 진행. 그러나 오후 들어 일부 상원의원의 대 중국 조사 법안 추진 소식으로 미-중 마찰 우려가 높아지자 낙폭 확대(다우 -1.89%, 나스닥 -2.06%, S&P500 -2.05%, 러셀 2000 -3.46%)

장 초반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의 상원 증언에 대한 기대와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경제 섯다운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언급 하자 상승. 그러나 파우치 소장이 기대와 달리 “준비 되지 않은 경제 재개로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야기 시킬 것” 이라고 경고하는 등 코로나 재 확산 우려를 표명. 더불어 “개발중인 백신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라고 언급하자 하락 전환.

한편, 연준위원들도 경제 재개에 대해 우려를 표명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빠른 경제 재개는 혼란을 줄 수 있으며 2021 년 경제도 위협 할 것” 이라고 경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바이러스가 멈출 때까지 경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 라고 주장. 랜들 웰스 연준 부의장도 “극도로 높은 실업률이 단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경제 재개 및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를 표명

이런 가운데 상원의원 일부가 코로나 19 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중 무역 마찰 우려가 부각되며 낙폭을 확대. 최근 미 행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는 점을 감안 시장은 부담을 느낌. 특히 오늘 있었던 미국 연금펀드의 중국 주식 매입 금지 절차 도입에 따른 마찰과 여러 인사들의 경기 회복 지연 우려 발언을 더욱 자극하며 매물 출회 확산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1,922.17	-0.68	홍콩항셱	24,245.68	-1.45
KOSDAQ	684.21	-0.12	영국	5,994.77	+0.93
DOW	23,764.78	-1.89	독일	10,819.50	-0.05
NASDAQ	9,002.55	-2.06	프랑스	4,472.50	-0.39
S&P 500	2,870.12	-2.05	스페인	6,762.70	+1.36
상하이종합	2,891.56	-0.11	그리스	596.65	+0.05
일본	20,366.48	-0.12	이탈리아	17,559.32	+1.0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7% 하락

마이크론(-5.21%)은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미-중 무역마찰 우려로 급락했다. 인텔(-2.89%), AMD(-3.55%), AMAT(-3.11%) 등 반도체 관련주도 동반 하락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7% 하락했다. 나이키(-2.94%)와 기계업종인 캐터필라(-3.32%), 3M(-2.89%) 등 산업재는 미-중 무역마찰 우려로 하락했다. TJX(-4.94%), 메이시스(-5.31%) 등 백화점 업종과 로스스토어(-4.55%) 등 소매 유통 업종은 너무 이른 경제 재개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부각되자 급락했다. 라스베가스 샌즈(-5.24%), 윈 리조트(-4.85%) 등 카지노, 리조트 회사들도 약세를 보였다.

한편, 할인마트 등을 기반으로 한 리츠 금융 회사인 SPG(-0.98%)는 이번 주 50% 지점을 재 오픈한다고 발표하며 급등 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했다. JP모건(-3.27%), BOA(-3.14%), 씨티그룹(-3.90%), 웰스파고(-2.99%) 등 금융주는 개인들의 신용 리스크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했다. 엑손모빌(-1.67%), 셰브론(-2.43%)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98%	대형 가치주 ETF(IVE)	-1.97%
에너지섹터 ETF(OIH)	+0.52%	중형 가치주 ETF(IWS)	-3.04%
소매업체 ETF(XRT)	-2.58%	소형 가치주 ETF(IWN)	-4.13%
금융섹터 ETF(XLF)	-2.61%	대형 성장주 ETF(VUG)	-2.05%
기술섹터 ETF(XLK)	-2.06%	중형 성장주 ETF(IWP)	-2.20%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67%	소형 성장주 ETF(IWO)	-3.12%
인터넷업체 ETF(FDN)	-1.75%	배당주 ETF(DVY)	-2.05%
리츠업체 ETF(XLRE)	-4.25%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8%
주택건설업체 ETF(XHB)	-3.4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2%
바이오섹터 ETF(IBB)	-2.13%	미국 국채 ETF(IEF)	+0.33%
헬스케어 ETF(XLV)	-1.52%	하이일드 ETF(JNK)	-0.05%
곡물 ETF(DBA)	+0.07%	물가연동채 ETF(TIP)	+0.09%
반도체 ETF(SMH)	-2.75%	Long/short ETF(BTAL)	+0.8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82.93	-2.36%	-0.07%	+9.93%
소재	320.23	-1.56%	-0.46%	+0.09%
산업재	511.55	-2.84%	-1.89%	-3.25%
경기소비재	931.57	-2.25%	+1.13%	+3.22%
필수소비재	589.31	-0.87%	-0.34%	-4.59%
헬스케어	1,159.62	-1.49%	-0.31%	+2.50%
금융	352.74	-2.67%	-2.61%	-6.09%
IT	1,641.18	-2.14%	+2.16%	+4.88%
커뮤니케이션	171.09	-1.94%	+0.90%	+4.70%
유틸리티	281.18	-0.90%	-2.50%	-8.73%
부동산	195.57	-4.25%	-4.62%	-9.9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조정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0% MSCI 신흥 지수 ETF 는 0.38%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26.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피터 나바로의 코로나 중국 책임론 언급에 따른 미-중 무역마찰 우려 및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으로 하락했다. 물론 장 중 한국 정부의 이태원발 3 차 감염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재확산 우려를 완화시켜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으나, 장 마감을 앞두고 재차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연준위원을 비롯해 주요 인물들이 너무 빠른 미국 경제 재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더불어 미 상원의원들이 코로나 관련 중국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특히 관련 법안을 추진하면 미-중 무역 마찰 우려가 확산될 수 있어 외국인의 매물 출회 지속 가능성이 높아 한국 증시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은행들이 실업률 급증을 이유로 신용 리스크를 우려해 개인들의 대출을 줄이고 있어 미국의 소비 둔화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소식 또한 부정적이다. 이는 향후 한국의 대 미 수출 둔화 우려를 높여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마이크론(-5.21%)이 미-중 마찰과 반도체 수요 둔화라는 부정적인 요인이 부각되자 급락하는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7% 하락한 점도 부담이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물가 하락

미국 4 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8% 하락해 지난달(mom -0.4%) 보다 하락폭이 컸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4% 하락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1.4% 상승을 기록해 전월 발표(yoy 2.1%)이나 예상(yoy 1.8%)를 하회했다.

4 월 미국 소기업 낙관지수는 전월(96.4) 보다 둔화된 90.9 로 발표되었으나 예상(84.8) 보다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급등

국제유가는 사우디가 전일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산유량 감산을 발표한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등도 추가적인 감산을 발표하자 급등했다. 더불어 멕시코만과 텍사스 지역 등을 관할하는 달라스 연의 카플란 총재가 페르미안 지역의 산유량이 하루 100만 배럴 급감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급등 요인이었다. 한편, 미 에너지 정보청(EIA)은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수요 전망에 대해 하루 1,170만 배럴 하향 조정했으나 영향은 제한되었다.

달러화는 코로나 재 확산 우려 및 미-중 무역마찰이 이어지자 불확실성이 유입되며 보험권 등락을 보였다. 특히 물가 하락과 연준 위원들의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 없다는 발언이 있었으나, 추가적인 부양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언급은 달러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국채금리는 파우치 소장이 경제 조기 재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하락했다. 한편,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와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랜들 퀴스 연준 부의장이 경기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발언을 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더불어 미-중 무역마찰이 확산된 점도 영향을 줬다. 다만, 내일 파월 연준의장이 마이너스 금리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낙폭은 제한되었다.

금은 경기 회복 지연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회복 지연 우려로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11% 상승했으나 철근은 0.69%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25.78	+6.79	+4.97	Dollar Index	99.999	-0.24	+0.29
브렌트유	29.98	+1.18	-3.20	EUR/USD	1.0848	+0.38	+0.07
금	1,706.80	+0.52	-0.22	USD/JPY	107.14	-0.48	+0.53
은	15.709	+0.18	+3.96	GBP/USD	1.2259	-0.62	-1.42
알루미늄	1,477.50	-1.34	-0.37	USD/CHF	0.9697	-0.34	-0.31
전기동	5,256.50	-0.01	+2.61	AUD/USD	0.6469	-0.31	+0.59
아연	2,005.00	-1.16	+5.55	USD/CAD	1.4072	+0.46	+0.16
옥수수	322.25	+1.18	+1.66	USD/BRL	5.8877	+1.18	+5.54
밀	514.50	-0.53	-1.20	USD/CNH	7.1078	+0.04	-0.21
대두	852.00	-0.35	+1.49	USD/KRW	1224.80	+0.35	-0.35
커피	107.35	-3.07	-2.98	USD/KRW NDF1M	1226.50	+0.28	+0.37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668	-4.16	+0.64	스페인	0.784	-2.50	+0.80
한국	1.430	-4.00	-6.60	포르투갈	0.914	-1.70	+2.60
일본	0.002	-1.20	+2.10	그리스	2.139	-1.40	-2.50
독일	-0.505	+0.70	+7.30	이탈리아	1.888	+1.20	+2.40